

1. 내 고장의 노래 <파주 1~3>

먼 옛날로 부터 파주 땅에 메아리치던 노래가운데서 세편을 골라 다 함께 부를 오늘의 노래로 엮었다.

혼자 부르는 유행가요는 범람하고 있으나 모임의 일체감을 더 높여줄 단체노래가 부족한 현 상태에서 잊고 있었던 민중의 전승민요가 돋보이는 것은, 특히 노동요들은 현대적 수용이 가능한 주옥같은 단체노래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여파로 지역별 개성적 문화의 창출과, 정보화시대에 부족하기 쉬운 공동정서의 함양을 위해 향토민요의 보급은 필요하며, 우리가 해야할 한가지 일이기도 하다.

학교와 일터와 친목 모임에서, 각종의 합창경연과 방송 매체에서, 내고장의 노래들이 애창되는 새 노래문화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이다.

<파주 1>

헤이리 소리

- 내고장 노래 부르기 -

C.D 10 참조

(매) 허형 허허 허허아하
허허이 허허아하
에헤 헤이리
로호 호호야

(밭) 어 허 허 허
허 허이 허허야
헤 헤이 헤이리
로 호 호아

♩ = 60

(매)

형 허

허 허 어 형 어 허 야 하

오 늘 - 해 - 도 -

서 허 - 산으 루 (*) 기 울 었 네



(매) ◦ 형 허
허 허어형 어허야하
헤이리 소리든
서산의 나무꾼 소린데

◦ 형 허 허 허어형 어허 야하
네 허 허 허 허 허 허
몇양 씨이나 받느냐

◦ 형 허 허 허 허어형 어허 야하
네 허 허 허 허 허 허
몇양 씨이나 받느냐

◦ 형 허 허 허 허어형 어허 야하
네 허 허 허 허 허 허
몇양 씨이나 받느냐

◦ 형 허 허 허어형 어허 야하
허 허 허 허 허 허
오 등 추 야 밤에

◦ 형 허 허 허어형 어허 야하
허 허 허 허 허 허
정든 님 생각이 난다

◦ 형 허 허 허어형 어허 야하
허 허 허 허 허 허
기화 요초는 중에

◦ 형 허 허 허어형 어허 야하
허 허 허 허 허 허
꽃 속에 잠든 나비

해 설;헤이리 소리는 ‘서산 나무꾼소리’라고도 일컬어지는 경쾌하고 흥겨운 곡으로 파주시를 비롯하여 고양시와 양주군에서 수집된다. 후2자의 것은 짝은 헤이리 소리에 해당한다.

나무꾼소리와 논맴소리, 회방아소리로 두루 쓰인다.

맥받형식이며 받음구가 “어 허 허 허 / 허 허이 허허 야- /

헤 헤이 헤, 헤이리 / 로 호 호 야”이다. <파주 1>의 (받) 제3행에서는 ‘헤이리’ 직전에 숨을 쉬고 있으나 ‘헤 헤이, 헤 헤이리’처럼 ‘헤 헤이’ 다음에 숨을 쉬어도 상관이 없다.

메김소리와 발음소리가 각각 3분박4박(12/8박) 4마디 씩이다. 3분박1박의 속도는 M.M 60으로 1초정도 소요된다.

메김구는 (고정구+변화구)로 이루어 진다. 고정구는 뜻없는 입말인 “형 — 허 / 허허 어형 어허 야하”로서 선을 두마디를 차지한다.

변화구도 선을 두마디 씩이되, 그 한마디 안엔 4 내지 9자(字)가 들어 가 있다.

구성음은 라도레미솔라'의 라선법이며 기음인 라에서 중지한다. 기음과 그 4도 윗음에 요성이 있다.

〈파주 2〉

논김 방아타령

— 내 고장 노래 부르기 —

C.D 9 참조

$\text{♩} = 60$

(메) α

엥 헤 - 에 헤 오

에 이 에 헤 에 헤 야 하 -

헤 야 - 하 하 아

엥 헤

(발) α

Sim.

(메)

쫓 — 타 하 조 옷 쿠 나

춘 추 후 절 이 히 적 막 한 데

개 자 하 춘 의 — 녀 이 로 다

면 산 에 헤 봄 이 들 어

불 타 한 잔 되 가

<복>

(반)

에 루 화 새 속 뉘 나 한 다 — 이

(메) ○ 쫓 타 하 , 조 옷 쿠 나 ○ 쫓 — 타 조 옷 쿠 나
구부러진 , 노승 나루는 너 허느 죽어서
바람에 건들 뜰 달은 하난의 모란이 되고요
허름중 천 뜰 달은 나난의 죽어서
에루화 사할비취 주네 에루화 범나비 되잔다

○ 쫓 — 타 , 조 옷 쿠 나 쫓 — 타 조 옷 쿠 나
독수 청강 , 호 르 옷 쿠 나 수 청강 , 호 르 옷 쿠 나
바추를 씻는 , 저 르 옷 쿠 나 바추를 씻는 , 저 르 옷 쿠 나
길뉘 속뉘 , 다 저 차를 길뉘 속뉘 , 다 저 차를
속애 주속 속애 주속
에루화 날 찌끔 , 주 — 후 럽

해 설; ‘논김 방아타령’은 받음구가 “엥 헤 에헤요, 에이 에헤 에헤 야하
헤야-하하아, 엥 헤”로서 일반형인 니나노 ‘방아타령’과 메김 소리는 같
으나 받음소리가 서로 다르다.

<파주 2>는 3분박2박(6/8)장단에 속하며 받음소리는 7마디씩이고 메김
소리는 메김구의 길고 짧음에 따라 14,10,12마디의 예를 보이고 있다. 그
1박의 속도는 1초정도 된다.

논김방아타령은 파주시와 고양시를 비롯하여 양주군, 동두천시 및 포천군
에서 수집된다. 논맬 때와 회방아 때에 불리운다.

<파주 2>의 메김구는 그 첫행의 ‘젯-타하 조오희나’와 끝행 첫박의 ‘에
루화’가 고정구(固定句)로 쓰인다.

<파주 2>의 출현음은 (레)솔라(도)레미(솔`라`)이고 솔끝이 젯대음으로
쓰이며, 주요 구성음은 솔라레미 이다. 요성은 솔과 도함에 있다.

<파주 3>

우야 소리

— 내고장 노래부르기 —
C.D 14-3 참조

♩. = 60

(메) α (받) α

우 후 야 라 훨 훨

(메) (받)

우 야 소 리 에 새 모 여 든 다

(메) (받)

말 잘 허 는 - 앵 무 새 며

(메) (받)

흙 잘 - 추 는 학 - 두 루 - 미



(받) ◦ 우후야라 훨훨

(메) ◦ 우야 소리에 새모여 든다
 ◦ 말잡히는 앵무새며
 ◦ 춤잡추는 학두루미
 ◦ 웃넉 새두 날어를 오고
 ◦ 아랫넉 새도 훨날려 오네
 ◦ 딱따구리는 남구를 잘파
 ◦ 나막신쟁이루 돌려놓고
 ◦ 제비란 놈은 머리가 고우니
 ◦ 평양기생으루 돌려놓고
 ◦ 까치란 놈은 남구집 잘지어
 ◦ 목수쟁이루 돌려놓고

◦ 황새란 놈은 다리가 기니
 ◦ 우편소 배달루 돌려놓고
 ◦ 공작새란놈은 문채가 좋으니
 ◦ 비단장수로 돌려를 보고
 ◦ 기러기 훨훨 방울새 떨어
 ◦ 높이 떴다 증달새며
 ◦ 알이 기누나 굴뚝새며
 ◦ 구만리 장천에 대붕새가
 ◦ 높이 떴서 훨훨 나른다
 ◦ 제비는 어데루 날아를 가고
 ◦ 이새 저새 다날라 가고
 ◦ 먹새란 놈만 남았구나
 -우야-

해 설; '우야'는 새꽃을 때의 의성어이다. 논매는 종결소리로, 또는 회방아의 마지막소리로 불리워진다.

논매소리로는 풍년이 들어 알곡을 까먹으러 온갖 새들이 다 모여든다는 풍년구가의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고,

회방아소리로는 새가 죽은 이의 영혼을 저세상으로 인도한다는 사상의 표현이라 하겠다.

우야소리는 남부경기도의 평택·안성군과 동남부 경기도의 이천·여주·양평군 및 인천광역시로 영입된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경기도 일대에서 수집되며 파주시와 고양시·양주군은 그 전파의 중심권이라 할 수 있다.

<파주 3>의 받음구는 "우,후야라 훨훨"이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 4박(12/8) 한마디씩이다. 그 1박의 속도는 1초정도 된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4 내지 6자 구성이다.

"황새란 놈은 다리가 기니, 우편소 배달루 돌려놓고"와 같이 못새들의 장끼에 맞추어 배치를 하는 가사는 민요 '동그랑땡'과 상통한다.

구성음이 솔라도레미솔인 술선법(평조)이며 기음의 5도윗음인 레에서 중지하되 이를 퇴성한다.